수도권

향나무

무학대사가 나옹선사를 추모해 심은 향나무

지정번호 여주-65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경기
수령 643년
수고 6m
흉고둘레 2.3m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천송리 282
37°17′52.36″N
127°39′40.73″E

사찰의 마당에 있는 보호수(여주-65) 향나무는 신륵사 명부전과 조사전 앞에 자라고 있다. 신록사에는 고목의 향나무가 4그루 있는데, 그 중 1개의 향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신륵사는 보기 드물게 강변에 위치한 사찰인데, 신라 진평왕(579~631 재위)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나 정확하지 않다. 신륵사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고려 우왕 2년(1376년)에 나옹선사가 이곳에서 열반하여 승탑이 세워지면서부터였다. 나옹선사(1320~1376)는 이름이 혜근, 법호가 나옹이다. 향나무의 나이는 643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6m, 가슴높이둘레는 23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7m 정도이며, 원줄기의 가운데 가지가 갈라져 아래로 처져 있어 전체적으로 갓 모양을 하고 있다. 원줄기는 1m 높이에서 2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2m 높이에서 가지 줄기를 내어 퍼져 있다. 줄기는 2m 높이까지 충전재 처리의 외과 수술 흔적이 있으며, 대부분의 가지 줄기가 밑으로 처져 있어 지주 10여 개가 받치고 있다. 잎은 원줄기에서 갈라진 가지마다 뭉쳐 달고 있으며, 보기 좋게 잘 다듬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향나무를 심은 사람과 관련하고 있다. 가장 적게 알려진 일화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심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알려진 이야기는 무학대사가 스승인 나옹선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나옹선사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는 마음으로 심었다는 것이다. 무학대사는 나옹선사의 제자이며, 이성계와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다음은 나옹선사와 관련한 이야기이다. 나옹선사가 직접 심었다는 기록과 함께 입적하기 전에 꽂아 놓은 지팡이가 자란 것이다. 한편 신륵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조사전은 덕이 높은 승려들의 초상화를 모셔놓은 곳인데, 가운데에 나옹선사의 스승인 지공대사, 왼쪽에 나옹선사의 제자인 무학대사, 오른쪽에 나옹선사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다. 지공스님 앞에 목조로 조각되어 있는 분은 나옹선사이다.